

OPP필름, 공급과잉 3만톤 고전

서통·삼영 과잉증설 및 화승·대일 참여... 공급 6만톤·수요 3만톤

2~3년 전까지 안정세를 유지해 왔던 국내 OPP(Oriented Polypropylene)필름시장이 판매저조 및 가격하락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다.

이는 OPP필름의 연간 국내 수요가 3만~3만5000톤 규모인데 반해 공급은 6만톤에 달해 공급과잉이 극심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OPP필름 내수가격은 89년 톤당 195만원, 90년 209만원, 91년 214만원에서 92년 상반기 189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수출가격은 89년 150만원, 90년 140만원, 91년 151만원에서 92년 상반기 146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OPP필름 주요 기업별 생산·판매실적 (단위:톤, 100만원)

구 분		1990		1991		1992(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서통	생 산 량	26,932	—	25,687	—	12,981	—
	내 수	15,317	32,221	13,551	31,895	7,271	14,989
	수 출	11,631	16,357	11,238	17,563	5,797	7,791
	소 계	26,948	48,578	24,789	49,458	13,068	22,780
삼영 화학	생 산 량	14,875	—	14,360	—	7,441	—
	내 수	5,111	9,810	8,265	13,881	4,166	6,997
	수 출	5,911	8,304	9,558	9,435	5,224	5,157
	소 계	11,022	13,114	17,823	23,316	9,390	12,154
울촌 화학	생 산 량	13,326	—	13,200	—	6,785	—
	내 수	7,024	13,184	6,766	13,706	3,232	6,703
	수 출	548	771	572	854	337	449
	소 계	7,572	13,955	7,338	14,560	3,569	7,232

OPP필름 공급능력은 70년대초 생산을 시작한 서통·삼영화학이 현재 각각 6개, 5개의 생산라인을 가동중에 있으며, 85년에 OPP필름 생산을 시작한 울촌화학은 3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 OPP필름 생산 기업들이 흑자를 거듭하자 90년대초 화승실업(생산라인 2개)·대일화학(2개)·연광(1개) 등이 OPP필름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과잉은 물론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통(대표 김순강)은 전체사업중 필름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OPP필름 내수는 직거래·대리점판매·특수판매(군·관납) 등으로 구분 거래하고 있다.

삼영화학(대표 이종환)은 OPP필름 사업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는 주문 생산(80%)·시장생산(20%)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문 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촌화학(대표 한규상)은 OPP필름 비중이 전체사업중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거래 및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계열사 농심 등 고정 수요처 확보로 경영이 양호한 상태이다.

한편, 서통·삼영·울촌 등은 PP가격 폭락 및 신규업체 참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수출 및 해외 현지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통은 91년 필리핀에 연산 7000톤 규모의 OPP필름 공장을 설립·가동중에 있으며, 삼영화학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 연산 1만7000톤 규모의 OPP 생산설비를 청주공장에서 이전·건설중에 있다.